

# 教科教育을 통한 情意的 行動教育

李 庸 煥  
(서울大 農業教育科)

대학에서의 人格教育이나 價値觀教育을 국민윤리, 철학과 같은 특정 교과목에만 미루고 專攻教科目에서는 知識과 技術에 관한 교육만을 하자는 것은 人格教育, 價値觀教育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教科目에서 知識 및 技術教育만 한다면 국민윤리나 철학교육도 자연히 인격이나 가치 형성보다 知識의 傳達에 치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 I. 問題의 提起

해방 이후 지금까지 연례행사처럼 계속되고 있는 大學에서의 學生運動은 대학내의 문제로서 그치지 않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비두되고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된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大學教育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과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였다.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 있는 정부 당국자나 이러한 문제와 직접, 간접으로 관계가 되는 학부모와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大學教育에 대한 이러한 의문은 專攻科目 教育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知性人인 대학생들이 가져야 할 精神姿勢, 人格, 道德心 등과 같은 행동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이러한 사실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어느 일류대학 앞에 위치한 국민학교에서 아침마다 학교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의 등교 지도를 하는데, 대학생들이 저시에 응하지 않고 마음대로 건너 다니기 때문에 국민학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다고 교장 선생님이 대학에 하소연을 하였다. 국가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곧잘 데모를 하면서 자신들보다 힘이 없고 미숙하다고 생각되는 어린이 앞에서는 전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이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조사에 의하면<sup>1)</sup> 주인정신, 도덕심, 사명감, 준법정신 등에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중, 고 및 대학에서의 情意的 領域 行動教育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問題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大學 敎授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가? 만약 있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 大學의 專攻科目 教育을 통한 情意的 領域 行動教育에 대하여 論議를 하기에 이르렀다.

## II. 情意的 領域 行動의 概念

情意的 領域 行動이란 Bloom 이 교육목표를 분류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認知的 領域(cognitive domain), 情意的 領域(affective domain), 心體的 領域(psychomotor domain)으로 나눈 데서 나왔다. 인지적 영역의 행동은 어떤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재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것을 이해하며 다른 사물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비해 정의적 영역의 행동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好·不好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더 나아가서는 생활의 지표가 될 價値로 삼는 등의 행동으로서, 예를 들면 態度, 興味, 價値觀, 情緒 등 아주 다양하다. 심체적 영역의 행동은 머리와 몸을 함께 사용하는 행동으로서 技能, 技術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教育에서 인지적 영역의 행동 교육을 知育, 정의적 영역의 행동 교육을 德育, 심체적 영역의 행동 교육을 體育이라고 하여 全人教育을 위한 세 가지 주된 요인으로 삼았다.

情意的 領域의 행동을 교육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주로 情意的 領域의 행동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교육인데, 예를 들어 國民精神教育, 理念教育, 國民倫理教育 등이 이에 속한다. 國民精神教育은 국민이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價値觀을 형성하고 이에 따른 실천적 태도와 동기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sup>2)</sup>으로서 주인공, 명예심, 도덕심, 협동정신, 사명감, 준법정신, 애국심, 반공정신, 통일외지 등을 교육 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행동이 모두 情意的 領域의 행동들이다. 정신교육이나 이념교육 등도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價値觀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情意的 領域의 行動을 교육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위와 같은 어떤 특정 가치관을 중심으로 개설되는 독립된 교육만이 아니라 專門教育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인데 이러한 교육은 전공교육을 하면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人格 양성의 교육, 德育教育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III. 專門 教科教育을 통한 情意的 行動教育의 필요성

서양식의 근대적인 학교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教育은 儒學經典을 중심으로 忠·孝·禮를 배워 실천하는 德育 中心의 教育이었다. 그러나 1890년경부터 育英公院, 배재학당, 이화학당 등에서 漢文, 歷史, 物理, 各國言語 등과 같은 새로운 敎科目이 소개되었고, 1895년 고종의 教育詔書가 발표되면서 德育, 知育, 體育의 세 가지가 教育에서 강조되었으며, 공리공론을 일삼는 禮 中心의 教育에서 탈피하여 실용적인 知育이 특히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敎科目 자체가 知識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 바뀔 때 따라 자연스럽게 教育의 중심이 德育에서 知育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德育을 기본 목표로 하는 倫理 科目이 새로이 편제되어 하나의 독립 과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科學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의 양도 자연히 증가하고 專門分野가 세분화되었으며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일생 동안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德育과 體育은 그것을 전달하는 敎科目에 모든 책임을 넘기고, 專門分野 教育은 知識 中心 教育으로 변해 갔으며 심지어는 德育을 중심으로 해야 할 倫理教育마저도 知識 中心化하여, 기본적인 道德律을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학의 전공 분야 교수들에게 專攻科目 教育을 통해 情意的 領域의 行動教育(人格教育, 價値觀教育, 精神教育 포함)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아마도 극소수의 교수들만이 수긍하게끔

되었다. 그러나 大學教育이라고 해서 과연 知育 중심의 교육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大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임무는 사회의 해당 분야에 필요한 人力을 공급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人力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분야에 필요한 知識과 技術만을 갖추면 될 것인가? 교육의 기능면에서 볼 때, 아무리 산업 기술이 발달되고 고도화된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기술만을 갖춘 人力을 기른다고 하여 교육이 그 기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教育이란(대학교육도 포함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기르는 것 또는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때, 교육은 인간을 위한 것이며 인간 중심의 것이 되어야 하며, 결코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계의 부속품을 공급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배운 知識과 技術의 目的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그것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主人意識, 倫理意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教育이란 知育, 德育, 體育을 골고루 함양하여 全人教育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긍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을 數學科, 化學科 등과 같은 專攻學科의 專攻科目에서 德育, 體育을 가르치고 길러야 한다고 하면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도 大學 수준 이하의 교육에서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일단 수긍은 하는 편이다. 그러한 것의 증거는 대학의 敎職科目 교육에서 교육목표라고 하면 의례히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체적 영역이 모두 강조되고 있다는 점과各科의 教育方法에서도 이러한 예를 많이 찾을 수 있다.

康宇哲 교수<sup>32)</sup>는 역사 교육을 知識教育과 價値教育으로 나누고 知識教育은 價値教育에 先行되며 價値教育은 價値觀 형성을 위한 교육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 역사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의 價値觀 형성에 있는 만큼 知識 중심의 역사 교육에서 탈피하여 국가와 사회가 요청하는 참된 인간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역사 교육의 본연의 자세라고 보았다.

數學教育에 있어서도 아동으로 하여금 수학 학습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 수학 과목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수학적 개념의 상대적 명확성과 수학적 인식의 상대적 확실성의 價値 등과 같은 情意的 領域의 행동이 강조되고 있다.<sup>33)</sup>

國語教育의 목적도 언어적인 기술 교육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민족인으로서 필요한 정의적 영역의 행동, 다시 말하면 人格의 完成, 自主의인 公民, 愛國愛族의 정신, 信義와 協同정신 등을 가진 사람으로 양성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sup>34)</sup> 이러한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는 각 敎科科目을 통하여 교육 목적인 知育, 德育, 體育을 달성하러 하고 있다.

그런데 大學教育은 고도로 전문화된 교육이기 때문에 각 전공 교육에서는 知育만 담당해야 하는가? 韓沁錫 전 서울대 총장은 人力이 진실로 人力으로서 유용하기 위해서는 인격을 基底로 하는 人力, 즉 洞察力과 더불어 生産的, 創意的 思考와 再調整의 能力을 보유하고 있는 인간, 人格 소유자로서의 人力이 진정한 유용한 人間型이며, 그러한 인간을 산출하는 기능이야말로 어떤 다른 사회적 제도도 감당할 수 없는 大學의 고유한 기능의 하나<sup>35)</sup>라고 하였다. 羅雄培 아주대 총장은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大學의 機能은 지식과 기술의 개발·傳授에 그쳐서는 안 되며 높은 倫理意識을 갖춘 專門人力, 다시 말하면 높은 道德性과 균형 잡힌 全人의 人格을 갖춘 人材를 사회에 배출하는 것<sup>36)</sup>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大學에서도 각종 전문 분야에 관련된 職業倫理에 관한 교육을 독립된 과목이나 專攻敎科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sup>37)</sup> 미국내 110개 의과대학을 조사한 바 90%가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고, 법과대학에서도 법적 윤리나 직업 윤리에 관한 독립된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공과대학의 경우 1976년도 조사에서는 128개 대학의 250개 강좌 중 13개 강좌에서만 직업 윤리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1979년 조사에서는 공업 분야의 직업 윤리에 관한 30~40개 강좌가 개설되었고, 50개 이상의 강좌가 개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大學教育에서

도 人格敎育, 倫理敎育을 비롯한 人間의 情意的 領域 行動을 敎育할 需要가 있으며, 또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專門敎科를 통한 情意的 行動敎育의 方法

大學에서의 人格敎育이나 價値觀敎育을 국민 윤리, 철학과 같은 특정 교과목에만 미루고 專攻敎科目에서는 知識과 技術에 관한 敎育만을 하자는 것은 대학에서 人格敎育, 價値觀敎育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학에서 제공되는 모든 교과목에서 人格이나 가치관에 관련된 敎育을 하지 않고 知識敎育만 한다면 자연히 국민 윤리나 철학 敎育도 인격이나 가치 형성보다 그러한 분야의 知識의 傳達에 치중할 것이므로 인격 敎育은 할 수가 없게 된다. 大學敎育에서 人格敎育을 하려면 모든 專門敎科敎育에서 그러한 접근을 조직적으로 함으로써 대학교육 본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專門 敎科目을 통하여 정의적 영역의 행동 敎育을 하려면 먼저 敎育의 目的이 될 수 있는 태도, 흥미, 가치 등과 같은 행동을 지식이나 기술과 더불어 敎育目的으로서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專門 敎科目을 담당하는 교수는 나름대로의 人格 完成에 관련된, 그러면서도 국민으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의적 행동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資質에 관한 哲學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것을 기초로 敎育상 바람직한 행동을 目的로 설정하여야 한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明文化시키지는 않았으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 윤리가 바로 敎育 目的의 자원이 된다. 그러한 目的의 예를 들면 과학적 탐구정신, 협동정신, 주인의식, 봉사정신, 전문 직업 분야의 윤리의식, 애국심, 긍정적인 자아의식 등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한 敎科目에서 모든 目的을 다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 중요한 目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敎育 目的이 반드시 정의적 영역의 행동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大學의 專門 敎科目 敎育

目的은 주로 知的 領域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정의적 영역의 행동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Krathwohl과 Bloom<sup>9)</sup>은 情意的 領域의 敎育 目的 수준은 感受(receiving), 反應(responding), 價値化(valuing), 組織化(organization), 價値 또는 價値複合에 의한 人格化(characterization of a value or value complex)로 제시하고 있다. 정의적 영역의 행동 敎育은 敎수가 제시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고(感受), 그에 대하여 스스로의 의견을 제시하며(反應), 이것을 자신의 가치로 만들고(價値化), 조직하여(組織化),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발전시키고 人格을 다듬어 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敎育은 바로 價値觀 敎育이며 人格敎育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敎育을 하려면 專攻敎科目 敎育 시간에도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價値, 倫理, 思想 등 정의적 영역의 행동 目的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그러한 目的도 없이 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敎育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의적 영역의 敎育 目的이 정해지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고 수업 시간에 그것이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專門分野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目的이 있다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만약 이 분야는 취지도 잘 되지 않고 앞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자부심이 양성될 리가 없는 것이다.

知的 領域의 敎育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잘 기억하고 이해하여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 즉 시청각 교재를 이용하여 강의를 한다든가 실험실습을 면밀히 계획하는 등의 敎育 方法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정의적 영역의 행동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그에 맞는 여러 가지 方法이 강구되어야 한다. 價値敎育을 위한 方法은 가치관을 양성할 수 있는 方法이어야 한다. 이러한 方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람이 어떤 價値를 어떤 方法으로 자신의 價値로 만들어 가는가 하는 價値化의 過程(process of valuing)을 보기로 하자.<sup>10)</sup>

• 選擇(choosing)

- ① 자유롭게 선택할 것
- ②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것
- ③ 각각의 결과를 심사 숙고한 후에 선택할 것

• 尊重(prizing)

- ④ 선택한 것을 칭찬하고 행복을 느낄 것
- ⑤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려고 할 것

• 行爲(acting)

- ⑥ 선택한 바에 따라 행동할 것
- ⑦ 반복함으로써 생활의 양식으로 만들 것

이러한 면에서 볼 때, 價値觀이 형성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서 자유롭게 잘 생각하여 선택한 후에, 그것에 대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한 價値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며, 실제의 생활도 그러한 가치관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행동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價値教育의 방법은 이러한 價値化의 과정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價値教育의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 鄭世九 교수는 價値教育의 方法을 전통적인 방법과 새로운 가치교육 방법으로 나누고 전통적인 방법에는 說服과 수증케 하는 것, 도범이 될 예를 제시하는 것, 價値 選擇을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것, 상벌을 사용하는 것, 문화적·종교적 敎理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새로운 가치교육 방법에는 集團에 의한 비판적 분석방법, 입장을 옹호하는 방법, 다른 사람과 同一化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朴容憲 교수<sup>12)</sup>는 態度 및 價値觀의 學習方法을 주입식 방법과 탐구적 방법으로 나누고 주입식 방법에는 說得, 模型 提示, 敎養法이 있으며 탐구적 방법에는 討論, 價値紙의 記入, 役割놀이, 시뮬레이션 등이 있다고 하였다.

專攻 敎科目을 통하여 정의적 영역의 행동을 가르치는 방법은 그 교과목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정의적 행동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價値觀教育의 원리에 맞도록 價値觀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模範을 보이며 討論 主題를 선정하여 학생들과 토의를 하는 등의 다양

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정의적 행동에 대한 교육은 일정한 방향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야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한 학기 또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大學에서의 人格教育이나 價値觀教育은 교양 과목 내지는 일부 정신교육 과목만으로 달성되리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大學에서 개설되는 모든 敎科目에서 정의적 영역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때, 대학이 國家發展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人力을 양성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 V. 專攻敎科를 통한 정의적 행동 교육의 문제점

전공 교과목을 통하여 人格教育 내지는 價値觀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는 하지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끝맺고자 한다.

첫째, 교수들에 관한 문제이다. 大學教育은 전공 분야에 관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주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아 왔고, 정의적인 영역의 행동을 교육하는 방법을 배워 본 일이 없는 교수들이 전공과목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철학, 신념, 가치관을 가르치려는 데 적극성을 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전공 교과를 통한 정의적 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

교수에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교수들이 정의적 영역의 교육에 적극성을 띠겠다고 할 때 가르칠 목표로서의 바람직한 정의적 행동을 어떻게 습득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교수들 사이에 이러한 행동은 바람직하고 이러한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습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공 교과를 통한 정의적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 교육 목표 설정의 기준, 교육 자료 등에 관한 세미나를 통하여 교수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필요한 자료를 지원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의 문제는 학생들의 호응에 관한 문제이다. 價値觀教育은 제시된 가치를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필수적인데, 교수들이 제시하는 가치관, 윤리의식 등의 정의적 행동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이다. 예를 들어 老教授가 자신의 경험에 따라 엄격한 유교적인 질서의식, 孝, 국가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젊은 학생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이 일어나지 않은 채, 시간만 낭비하고 말게 될 위험이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스스로 成人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價値觀을 정립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교육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교수가 어떤 價値觀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두고 모두 참여하여 討論에 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낸다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

<註>

1) 지교현, 이용환, 안제순, 「국민정신 교육의 운영

실태 및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2) 李啓鶴 외 4인, 「國民精神教育 教材에 대한 分析的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p. 5.
- 3) 康宇哲, 「歷史의 教育」, 敎學社, 1974, p. 242.
- 4) 金應泰, 朴漢植, 禹正喆, 「數學教育學概論」,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4, p. 83.
- 5) 金敏洙 외 5인, 「國語教育論」, 一潮閣, 1978, p. 42.
- 6) 韓沁錫, 「發展途上國에 있어서의 大學의 役割」, 「高等教育의 改革」,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pp. 59~60.
- 7) 羅雄培, 「우리의 現實과 大學의 使命」, 「大學教育」, 제 4호, 1983. 7, p. 12.
- 8) Hastings Center Staff, The Teaching of Ethics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An Empirical Synopsis, *Ethics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Plenum Press, New York, 1980, pp. 153~169.
- 9) 林義道, 陳渭教, 高宗烈, 辛世浩 共譯, 「情意的 領域」, 「教育目標分類學(Ⅱ)」, 益文社, 1980.
- 10) Louis E. Raths, Merrill Harmin and Sidney B. Simon, *Values and Teaching*, 2nd Ed.,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 1978, pp. 26~29.
- 11) 鄭世九, 「價値理論과 價値教育」, 教育科學新書 14, 教育出版社, 1977, pp. 92~108.
- 12) 朴容憲, 「情意的 教育」, 「態度와 價値觀의 教育」, 培英社, 1969, pp. 127~34.